

2021년 4월 1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6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72장(통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4장 1~18절(구약p.1237)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6.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 말씀선포 / 인생의 문제와 해답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그만큼 불안도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을 많이 찾는 이유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번민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도, 철학도, 지식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신들을 찾아간다고 해도 우상은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줄 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냐며 불평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며, 무너지고, 실패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늘을 살며 개인적거나 혹은 가정에서,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바로 알고 잘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이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1. 우리 삶은 불안과 번민의 연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 느부갓네살왕은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그 꿈이 자신의 앞길과 관련된 불길한 신의 계시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누리던 느부갓네살왕이었지만 그 꿈 하나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재앙과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생의 두려움의 절반이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왕같이 막강한 권력은 물론이고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번민에 휩싸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문제를 견디고 이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로서 담대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2. 결코 세상은 인생의 답을 줄 수 없습니다.

- 느부갓네살왕은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지혜자에게 해몽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알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점쟁이나 무당을 의지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계략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심한 괴로움과 아픔을 주며 해결하는 듯 하나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근본은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 숭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사람은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바벨론의 지혜자 중 아무도 꿈의 의미를 알려 주지 못하자 그들은 섬기는 우상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도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달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에 대해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 라고 칭하면서 꿈 해석을 의뢰합니다. 전에도 다니엘은 그가 망각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 주었으므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억하고 있는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니엘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알리고 계시기에 그 해석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에서 유일하게 의존해야

할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감당했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이, 인생의 번민이,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에는 두려움과 실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믿음의 길은 그 험잡아도 무거운 우리의 삶의 무게와 더불어 더욱 우리를 무겁게 하며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딜만한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또다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번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동행하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08장(통466) 나 어디 곳에 있든지

◎ 폐 회 / 주기도문